필라델피아 한인천주교회

Holy Angels Parish of Archdiocese of Philadelphia
www.philaholyangels.org

7000 Old York Road, Philadelphia, PA 19126 • 사무실 (215) 927–1662 • FAX (215) 224–6615
주임 신부 : 정대웅(요한보스코) • 보좌 신부 : 김찬미(가비노)
사목회장 : 서영찬(프란치스코) 267-471-9048 • 연령회장 : 하동한(아오스딩) 267–616–8899

입당송 :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제 1독서 : 민수기 6,22–27
화 답 송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제 2독서 : 갈라티아서 4,4–7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복 음 : 루카 2,16–21
영성체송 :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미사 지향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7시	연	이규선 서금례	박영남 박한옥	영원한 안식
	생	김완수(토마스빌라노바) 소미숙(젤마나)	이재업	가정 축복
		김종혁(프레데릭)가정	임데레사	
		허정삼(베네딕도) 가정	서숙희	
		변홍균(베다) 가정 이복순(아가다) 가정	김프레데릭	
		김근회(베드로) 가정 김현직(요한) 가정		
		임영옥(아네스) 가정 이현숙(글라라) 가정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7시	생	차주삼(버나드) 가정 김창호(디모테오) 가정 이광배(니콜라오스) 가정 최석우(가브리엘) 가정 권혁언(미카엘) 가정 안병용(바오로) 가정 박종길(베드로) 가정 박실비(도미니카) 가정	허채만	가정 축복
10시	연	이창성(요셉)	변헬레나	영원한 안식
		조종국(요셉) 성정모 김기임(마리아) 이은자(마리아) 세상을 떠난 조상들	로사	
		박희영(요셉) 김문희(마리아)	정율리아	
	생	신년 가정축복 기원 합동 미사		

새해에는 주님의 은총이 더욱 가득하시길 ...

지난 한해 홀리 엔젤스 공동체를 위해 힘써주신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과 봉사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더 많은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임 신부 : 정대웅 요한보스코
보좌 신부 : 김찬미 가비노
사목 회장 : 서영찬 프란치스코

2021년 제54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요약)

평화의 길인 돌봄의 문화

2020년은 코로나19가 야기한 대규모 보건 위기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이는 기후, 식량, 경제, 이주 문제처럼 서로 밀접히 관련된 위기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큰 고통과 불안을 야기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류의 길을 얼룩지게 한 사건들은, 형제애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피조물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화의 길인 돌봄의 문화'는 무관심과 버림과 대립의 문화에 맞서 싸우는 길이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 창조주께서 카인에게 찍어 주신 보호의 표, 안식일과 희년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서 돌봄이 지니는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목숨을 희생하는 선물을 통하여 당신의 돌봄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마태 9,9) 그리고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

첫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가운데에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너그러움이 처음의 열정을 잃어 가자, 교부들은 재산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는 하느님 뜻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회 본연의 섬김(디아코니아)은 교부들의 성찰로 풍성해지고, 신앙 증인들의 애덕을 통하여 더욱 활기를 띠면서 사회 교리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회 교리는 돌봄의 '원리'를 이끌어 낼 원칙들과 기준들과 지침들을 담은 소중한 자산으로 제시됩니다. 이 '원리'로는 모든 인간의 존엄 증진,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과의 연대, 공동선 추구, 피조물 보호가 있습니다.

버리는 문화가 지배하는 시기에 국내적으로 또 국가간에 더욱 심화되어 가는 불평등에 맞서, 저는 앞서 언급한 원칙들을 모든 이가 나침반으로 삼아 돌봄의 문화에 대한 예언자와 증인이 되어 사회적 불평등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사회적 원칙들의 나침반은 돌봄의 문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합니다. 이 나침반은 국가 간 관계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해 줍니다. 분쟁의 원인은 많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바로 파괴와 인도주의적 위기입니다. 참으로 막대한 자원이 무기, 특히 핵무기에 소비되고 있습니다. "무기와 다른 군비에 투자할 돈으로 결정적인 기아퇴치와 최빈국 발전 지원을 위한 '세계 기금'을 설립"하기로 한다면 이 얼마나 용감한 결정이겠습니까!

돌봄의 문화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원칙들의 나침반은 상호 연관된 다양한 맥락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 커뮤니케이션 주체,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 국제기구들과 정부 기관들과 비정부 기구들이 모든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상호 존중의 가치들을 전수하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돌봄의 문화는 평화 건설을 위한 특권적인 길입니다. 위기의 폭풍우에 흔들리는 인류의 배가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인간 존엄을 배의 키로, 사회적 기본 원칙들을 '나침반'으로 삼으면, 우리는 안전한 공동 항로로 항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 형제애와 연대, 상호 지원과 환대의 새로운 전망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합시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돌보는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형성"을 위하여 날마다 구체적으로 노력해 나갑시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2021년 신년 메세지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 가져라.
(시편 31,25)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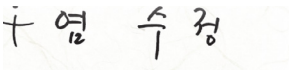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하루빨리 끝나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일상의 기쁨을 되찾기를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간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들을 위해 우선적인 사랑과 배려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수호의 최일선에서 모든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는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해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복음화를 위한 사목적 열정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화란 우리 신앙인 각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충실히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느님 구원의 섭리 안에서 우리나라와 온 세상에 평화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